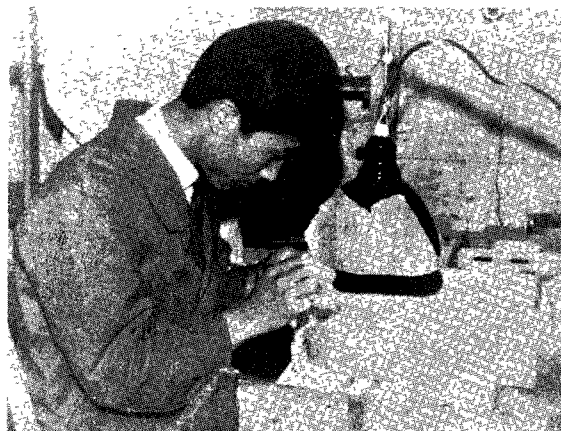


# 길고도 고달팠던 이국에서의 감별 10년

## (Ⅱ)

박 기 환

(감별사)



〈독일의 부화장에서 작업하는 필자〉

어느날 주말을 이용해서 쇼핑도할겸 런던 시내 구경을갔다. 런던의 명소들인 궁전과 테임스강을 가로지른 타워보릿지 근대의회정치의 상징이라고도하는 영국의 국회의사당 그리고 영국 전부와도 바꿀수 없었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생가와 잘가 꾸어놓은 많은 공원들 그리고 서울의 명동거리와 같다는 피카디리써커스의 거리를 두루 구경하고 명문대학인 옥스포드와 케임보릿지대학 특히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중세기영국이 많은 통치령이있을때 식민지정책에 반항하던 식민지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던 여러가지 고문기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무토막위에 목을놓고 도끼로 치던곳에는 아직도 마른피자국이 있고 날이 넓은 도끼가 꽂혀 있어서 보는이로 하여금 그당시의 잔인성을 느끼게 하였다. 런던에는 공원이 많은데 한결같이 깨끗하게 정돈된속에 많은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불과 몇미터열의 소음을 잊고 조용히 휴식하는장면은 사람의 물결로 복잡하고 소음공해가 많고 공원이 별로 없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

였다. 음식을 논하자면 우선 중국 음식을 생각케되고 세계어느 도시를 가나 중국음식점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런던의 피카디리써커스에있는 수많은 중국집은 많은 손님으로 항상 붐볐다. 중국 요리사들은 어느나라에 가서 식당업을 하든지 그나라 사람의 식성에 맞게 중국음식을 요리해 낸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에 3년전부터 지하철이생겨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일부담당하고 있는데 런던에는 이미 백여년전에 땅을 파고 지하철을 가설해서 운영했다고하니 과히 영국의 기계문명의 발달을 짐작할 수가 있다. 많은 식민지령을 가지고 있던 대영제국이 통치령으로부터 강제로 인부를 데려다 지하철을 건설 했다고 한다. 지하철입구에서 지하로 약20m 정도 밑에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2단이나 3단계의 에스카레이터가 설치 되어있었다. 지하철의 운행구간은 런던시를 타원형으로 돌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승차하면 런던시 어느 곳이나 갈수있게 되어 있었다. 지하철이 건설된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근래에 건설

된 서울이나 파리지의 지하철정거장과 같이 넓고 조명이 밝지 못하고 약간 어두운 것이 좀 다르다고나할까. 큰 여러개의 백화점을 두루 구경하고 한백화점에서 내복과 털세타를 몸에 맞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계산대앞에 가서 다른사람들과 같이 물건을 손에 들고 돈지불을 하려고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서있는 뒤에 서서 내 순서를 기다렸다. 앞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기에 보니 물건값을 받는 아가씨와 어떤 동양인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관광객으로 온듯한 동양인이 물건을 골라가지고 줄을 서지않고 그아가씨 앞에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다른손님들만 계산을 해서 돈을 받고 자기돈은 받아주질 않아서 화가난 모양이었다. 아마도 그 아가씨가 뒤에가서 줄을 서서 순서대로 오라고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양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앞에서 기다리다가 화가 난모양이었다. 끝내는 그 동양인은 사려고했던 물건을 제자리에 도로갓다 놓고 나가버렸는데 줄을 서있던 사람이나 돈을 받는 아가씨가 비웃음같은 냉소를 짓고 있어서 그것을 보는 나는 같은 피부색의 동양인으로서 일종의 부끄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울분을 느꼈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죽제품과 모직물제품이 싼편이어서 이웃나라사람들이 관광을 겸해서 영국으로 물건을 사러 온다고 한다. 영국에서 외국인이 방을 세언기란 대단히 힘들다. 방을얻으려고 신문의 광고를보고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면 방이있으니 오라고해서 가보면 영국인 집주인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선 미안하게됐다면서 조금전에 다른 사람에게 방을 세주었다고 하는데는 어쩔수없는 일이다. 다음날 신문광고란을 보면 여전히 그집이 방을 세논다고 광고가 나있어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에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그원

인을 알아본즉 외국인에게 방을 빌려주면 더럽게 쓴다고해서 셋방을 주려고 하지않는다고한다. 물론 영국에 거주하고있는외국인의 대부분이 인도나 파키스탄 또는아프리카에서온 사람들로서 거의 노동자계급이어서 지식수준도 높지않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므로해서 피로한 관계로 다소 청결치 못한 점이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유색인종이면 무조건 도매값으로 3등국민이란 취급을하는셈이다. 그들의 말로는 같은 유럽인이지만 이태리인이나 스페인인은 2등국민들이라고 평하고 있다. 얼마간 영국생활을 하면서 느낀것이지만 영국인들은 제삼자가 가벼운 피해를 주거나 실수를 하면 충고나 변상요구를 하지않고 웃음으로 대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사도인지? 나와같이기속하고있는 어떤 친구는 영국인에게 흉을 안잡히려고 식사때에 먹는소리를 내지않기위해 호흡을 제대로 못해 식사때마다고생하는 친구도 있었고 하숙방 2층 층계를 오르내릴때는 소리를 안내려고 개같이 기어서 다녔다. 외국인이 영국아가씨와 연애를 하려면 항상 다른 영국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아가씨를 위해 신경을 써야한다 만약 그아가씨가 외국인과 같이 다닌다는 소문이나면 상대들을 해주지않아서 결국 그아가씨는 주위의 영국인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만다. 경찰관 이라하면 그리 좋지않은 인상을갖는 우리들에게 영국의 경찰관은 좀다르다. 시내에서 길을 못찾아 고생할적에 경찰관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내가 찾고자 하는곳의 주소만주면 가까운곳이건 먼곳이건 그 집문앞까지 안내해주고 길잃은 어린이가 있으면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그 장소에서 어린이와 같이 놀아주기도 한다. 영국

에 경찰 인원이 많아 한가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가 되기위한 노력인 것 같다. 길지않은 영국생활이었지만 떠나 는 아쉬움을 느끼며 나의 개척지가 될 서독으로 떠나기 위해서 Y 사장으로 부터 대강 서독의 감별제소식을 전해들었다. 내가 머물게 되는 곳이 서독양계의 중심지이며 아직 본회사로서는 개척을 하지 못한 실정이라서 반년정도는 일자리가 없어 놀게 될 것이지만 한국감별사의 새진출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약간의 돈을 그간의 생활비로 선불을 받고나니 중임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했다.

다음날 런던공항에서 미개척적인 서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영국 런던 공항에서 서독의 브레멘이라는 도시의 공항까지는 1 시간 정도의 비행거리인데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나로써는 도착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으로 짧은 비행시간이었지만 꽤나 지루하였다. 비행기가 도버해협을 건너서 벨기에와 네델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비행하는 동안 날씨도 쾌청했고 저공비행을하고 있어 땅을 내려다보니 파란 풀밭 곳곳에 빨간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것이 꼭 성냥갑같이 보였다. 비행기가 브레멘에 도착하고 그리 까다롭지도 않은 검사를 받고 공항 대합실을 나오는데 은발의 중년신사가 사진한장을 들고와서 나에게 내밀면서 "You(당신)?" 하면서 사진을 가리키기에 보니 나의 사진이었다. 그다음 우리는 말을 안통했지만 손짓으로해서 그의 차를 타고 그의 집을 향하는 도중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침묵의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그는 십분이 멀다고 시계바늘을 가리키며 haus(집) 소리를 연발해서 내생각은 아마도 시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까지 가면 집에 도착될 수 있다는 소리구나 하고 짐작을 했다. 차는 아

우토반(고속도로)위를 시속 140km의 속도로 계속 달리다가 얼마후 고속도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길을 15분정도 달린후 그의 집에 도착하니 온가족이 처음대하는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과 반가움이 들떠서 점심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은 독일인의 주식인 삶은 감자와 기름에 튀긴 소고기와 야채였는데 씹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의를 생각해서 함께 어울려 먹고나니 김치생각이 나서 고국을 떠날때 조금 가지고온 고추장을 꺼내서 빵에 발라 먹는것으로 김치생각을 달랬다. 그후부터 나는 세계 공용어인 손과발(?) 그리고 표정만으로 병어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항상 사전을 휴대하고 있다가 의사가 통하지 않을때는 무조건 사전만 내밀었다 내가 거주하게된 비스벡이라는 동네는 인구 7 천명 정도의 마을인데 동양인으로서의 내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마을에 일을 보러 나가기만하면 모두들 창문을 열고 나를 쳐다보는 통에 꼭 창경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지점장인 씨머씨를 통해서 독일감별제 소식을 알아보니 서독 전국에 중년층의 독일인감별사 십명정도를 제외하고는 60명이상의 일본감별사들이 독일의 감별제를 장악하고 있었다. 십여명의 독일인감별사가 있다고해도 일본인감별사에 비해 감별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져 각부화장에서는 대부분이 일본감별사를 고용하고있는 실정이고 일본 감별사들의 감별실력이 보편적으로 매우 좋다는 인정을 받고 있어서 한국감별사들의 진출이 그리 용이하지는않았다. 이미 모든면으로 조직화가 되어있고 인정을 받고있는 일본감별사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는 감별료를 싸게해서 덤핑을 해야되는데 그렇게한다고해도 한국감별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바없는 부화장 주인들을 설득하기란 무척이나 힘들었다. 개척이라

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근 반년간을 몇군데의 큰 부화장에서 시험감별을 하고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로 인하여 한국감별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있도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나는데로 서독양계업계의 실정을 살펴보았다. 서독의 대부분의 양계업체에서는 연관성있는 기업을 운영해서 불경기가와도 파산되지않고 거의가 안정된 기업 운영을 해가고있었다.

실예를 들자면 채란양계업체는 사료공장→종계장→부화장→육추장→채란장→계란의상품포장을거쳐 자도시의 큰백화점이나 직매장으로 육계업체도 사료공장→종계장→부화장→육추장(직영또는위탁)→도계장→각도시의 백화점이나직매장 등을 운영해서 연관성있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상과같은 연관성기업을 운영하자면 자본이 선결문제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양계업체에서도 자본금 사정에 따라서 주식회사 형식의 업체도 있고 또 부분별로 위탁경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의 자본을 채워서 연관성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근대에는 우리양계업체에서도 몇몇의 큰 양계업체에서 연관성기업 운영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한국의 시장경제성과 유통과정이 구라파와는 다른고로 한국에서도 하면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한국의 유통구조와 시장경제에 맞도록 연구해서 연관성기업운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의 부화업체에서는 아직도 거의가 부화를 해서 초생추를 양계업자에게 분양판매를 하고들 있는데 장래에는 독일의 부화업체와 같이 부화된초생추를 자체 내 육추장에서 초산직전인 약20주령 까지 육추를 해서 양계채란업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될것 같다. 그렇게 하므로써 얻어지는 기업의 장점은대

량육추를 하므로해서 절약되는 인건비와 연료비 그리고 사료와 약품의 대량구입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인하여 양계업자 개개인이 직접 초산 직전까지 육추하는 단가보다는 싸게되므로 판매에 수월한 것이다. 또 한편 양계업자는 육추시설이 필요없게 되므로 육추장시설비와 대지를 채란장 시설에 투자, 확장 할수가 있으며 육추시에 질병과 관리부실로 인한 실패의 불안감이 없고 육추시에 폐사로 인한 성계숫자의 차질이 없게 되므로써 항상 계획성있는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redacted]의 구매형식은 초생추를 [redacted] 마찬가지로 사전에 주문판매를 [redacted]다. 위와 같은 사업운영을 하자면 [redacted] 부화업자의 많은 자본금이 필요조건이나 많지않은 장래에는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구라파지역과 가까운 일본양계업체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십여년간의 외국생활을하고 귀국해서 생활하는지도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양계업체에 대해서 몇몇의 가까운 친지들을 통해서 듣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한국양계업체는 예전보다 규모나 운영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 같다. 이제 우리 양계업체도 십여년전의 영세적인 양계경영을 탈피해서 이제는 기업화 되어 있고 몇개소의 업체에서는 이미 서구의 양계업체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시설과 많은 시간과 경비를요하는 종계의 품종 연구도 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당면문제인 사료의 자급자족이 가능치못해서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안정되지못한 운영을 해가고 있는 것은 십여년전이나 현재나 양계업체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해결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에 우리모두가 노력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다. <계속>